

목회의 프락



이 동 군 목사
해성교회 담임

보리를 베고 벼모를 심는 농번기철이다. 예전 같으면 베고픈 춘궁기를 벗어나는 희망의 계절이기도 하다. 겨울 보리농사를 거두고 여름 벼농사를 준비한다. 마찬가지로 오는 6월 3일의 대통령 선거는 우리의 오늘을 정리하고 공동체의 내일을 심는 날이다. 정의를 심고 평화를 거두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투표에 참여하여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가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치참여의 기본들 중의

그리스도인들은 난무하는 선심성 공약, 인기를 끄는 정책만 있고 대안이 없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적인 내용들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코 앞에 있는 시급한 난제들에 대한 해결책 제시가 없는 대중의 인기 영합, 감성적인 연설이나 구호를 경계해야 한다. 누구나 싫어하는 세금을 올리지 않고 절세나 감세로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약속하는 일은 현실성이 없다. 국가 재정의 여건이나 국민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전 국민에게 어떤 무상혜택을 주겠다.”는 등의 오직 표만을 얻으려는 무책임의 발상을 거부해야 옳다. 특정 계층에게 단기적인 지원으로는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될 수 없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이 없이 천문학적인 투자 약속들은 공허하다.

새로 들어설 정부는 지난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과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엄청난 재정 적자 속에 위험한 출범을 앞두고 있다. 새 정부는 지난 정부가 남긴 국가적 상처를 파악하고 치유해야 한다.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하여 국가 재정을 정상화 시키는 책임을 어떤 지도자에게 볼 수 있을까. 많은 쓸 돈을 어떤 방법으로 마련할지 실현 가능한 대책을 보고 싶다. 지속 가능한 정책은 재원마련 등의 합리적 대안이

정의를 심는 투표, 평화를 거두는 그리스도인

하나는 구약성경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이다.

(예언자)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사람이여, 무엇이 좋은지를, 여호와께서 그대한테서 무엇을 찾으시는지를! 다만 정의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과 한결같은 사랑을 즐겨 베푸는 것과 겸허히 그대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새한글성경)

이 말씀은 부패한 정치와 거짓 종교를 경고하는 하나님의 기준이다. 미가는 주전 8세기 경의 예언자였다. 외부로는 당시 주변 강대국들의 안보 위협이 있었고, 내부는 부패가 만연했다. 부자들의 탐욕과 압제도 심하였다. 종교적으로는 거짓 예언자들이 활동하는 등, 지도자들의 타락은 극에 달하였다. 이에 하나님은 예언자의 입을 빌려 심판을 경고하신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께서 계신다. 미가 예언자의 정의 실현과 사랑의 실천, 겸손의 삶을 보일 수 있는 지도자는 누구일까를 찾고 투표하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지도자의 철학을 읽어 내는 눈이 있어야 한다. 국가와 공동체의 공간은 정의가 바로 세워져 있어야 한다. 정의는 특권과 반칙이 없이 국민 누구나 공정한 경쟁과 책임으로 올바르게 세워 나가는 일이다. 권력을 가진 강자가 법과 규칙을 남용하면서 권한을 넘어 약자를 억압하고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된다. 작은 사람들도 평화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좋은 지도력이 활력있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반면에 지나친 권위와 권한의 남용으로 약자와 상대를 억압하고 위축시키는 독선적인 정치 지도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있을 때 진실이다. 이런 지도자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가 각종 기후위기를 초래하고 인류 생존의 과제를 안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질서 보전’의 명령은 선택 사항일 수 없다. 이를 위해 개인적인 노력과 함께 국가와 세계가 함께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 어떤 후보의 공약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탄소 중립 실현’을 말하고 있는가? 그 대안을 보고 싶다. 기후위기는 안전한 지구환경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이다.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어 폭염과 폭우, 엄청난 산불, 빙하가 녹고 바닷물 수온이 상승하는 위기를 UN 등과 어떻게 협력하며 위기 극복할 수 있는가의 방법을 내놓는 지도자를 찾아야 한다.

세계는 극심한 포퓰리즘에 시달리고 있다. 강대국들은 더불어 살아가야 할 세계 환경에서 약소국들을 고려하지 않고 무자비한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운다. 포퓰리즘이 반드시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를 알고 경계를 해야 한다. 이번의 선거에 국가의 미래가 걸려 있다. ‘하나님의 창조질서 보전’과 ‘정의의 실현’은 변할 수 없는 신앙실현의 기본 주제이다.

6월 3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구약의 예언자 사무엘의 심정으로 투표함 앞에 서야 한다. 정의와 평화를 실현에 가까운 지도자에게 기쁨을 부어야 한다. 우리 선택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첫걸음이기도 하다. 투표는 언제나 중요했었다. 특별히 이번 선택은 하나님 나라와 평화실현에 책임을 다하는 일이다.

이주의 추천음반

아티스트 : 지선 | 기획 : 광수미디어 (:한국)



지선 찬양 모음집(USB)
지선 1, 2집과 라이브를 모두 모은 USB 앨범

- 1집
1. 소명
2. 절절한 그릇
3. 너를 사랑해
4. 찬양하리
5. 주 예수보다 더 귀한것은 없네
6. 주님의 모습
7. 축하해요 사랑해요
8. 여호와께 나의 목자시니
9.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 2집
10. 주의 이름으로
1. 경배해요
2. 하늘아래 정한 때
3. 열려라 지말라
4. 십자가
5. 생명없는 회개
6. 구원으로 인도하는
7. 주의 은혜라
8. 에벤에셀
9. 날 위해 울어요
10. 감사
11. 주 한분만이
12. 기도
13. 예수 그리스도
14. 아무도 없을 때
15. 한 사람
16. 성도의 삶

2013년에 첫 출시되었던 지선1집 음반과 2017년에 발매된 지선2집, 그리고 지선유튜브 공식채널을 통해 제작된 지선라이브의 음원들을 이곳에 모두 담았습니다.

9년간 주께서 주신 찬양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여전히 이 찬양이 흘러갈때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 받은 은혜가득한 위로를 가지고 각자 맡겨진 곳에서 세상가운데 복음전도자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자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따뜻한 햇살과 신록이 가득한 이 계절은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더없이 좋은 때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사랑과 은혜를 되새길 수 있는 찬송가 다섯 곡을 선정하여 소개합니다. 각 곡의 의미와 배경, 그리고 작곡가나 작사가의 흥미로운 일화도 함께 담았습니다.

1.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How Great Thou Art) - 찬송가 통일 찬송가 40장
이 찬송가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

소망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타이타닉호 침몰 당시 마지막으로 연주된 곡이라는 일화가 유명합니다. 작사는 사라 플라워 애덤스(Sarah Flower Adams)가 1841년에 썼으며, 작곡은 로웰 메이슨(Lowell Mason)이 담당했습니다.

이 곡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다짐을 담고 있어 많은 아들에게 위로를 줍니다. 또한 아픔이 땀샘에서 하나님과 만난 이야기(창세기 28:10-22)에서 영감을 얻어 쓰여진 가사이기도 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집 같은 고생이냐”라는 가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표현합니다.

3.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Learning on the Everlasting Arms) - 새 찬송가 405장
이 곡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강조

“찬양하기 좋은 아름다운 계절”

심을 찬양하는 곡으로, 5월의 푸르른 계절과 잘 어울립니다. 이 곡은 스웨덴의 시인 칼 구스타프 보버그(Carl Gustav Boberg)가 1885년에 쓴 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번 번역되고 개작되었으며, 특히 영국 선교사 스튜어트 하인(Stuart K. Hine)이 영어 가사로 개작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하인은 우크라이나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중 폭풍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영감을 받아 가사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이 찬송가는 하나님의 창조와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이 그분의 손 안에 있음을 깊이 깨닫게 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라는 가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직접 경험하는 듯한 감동을 줍니다.

2.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Nearer, My God, to Thee) - 찬송가 새 찬송가 338장
이 찬송가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를

하는 찬송가로, 가정의 달에 가족과 함께 부르기에 적합합니다.

1887년, 미국의 작곡가 앤서니 쇼우얼(Anthony J. Showalter)이 친구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쓰던 중 영감을 받아 곡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엘리자 호프만(Elisha Hoffman)이 가사를 붙여 완성되었습니다.

이 찬송가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는 기쁨을 표현하며, 영화 <참을 수 없는 사랑>(True Grit)에도 등장하면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라는 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 주시는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4.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찬송가 559장)
이 찬송가는 가정의 화목과 하나님의 축복을 노래하는 곡으로, 가정의 달에 부르기 매우 적합합니다.

이 곡은 최병헌 목사가 작사하고, 박재춘 작곡가가 곡을 붙였습니다. 최병헌 목사는 한국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로, 많은 찬송가를 남겼습니다. 이 곡은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라는 가사로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따뜻한 사람과 평안을 찬양합니다.

특히 이 찬송가는 가정예배나 어버이주일 예배에서 자주 불리는 곡으로, 가족이 함께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기에 좋습니다.

5.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찬송가 588장)
이 찬송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과 가정을 돌보신다는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곡은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으며,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라는 가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새와 꽃조차도 돌보시듯, 우리 가정과 삶도 세심하게 인도하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찬송가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가족들에게 큰 위로를 주는 곡으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 주신다는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함께 부르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가장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이 곳에서 하나님이 경험되며 예배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이 동 영
미아노스 찬양성가사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2025학년도 총회신학 신·편입생 모집

본 총회신학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인준 정통 보수주의 신학연구원입니다. 청교도적 개혁주의 보수신학의 요람으로서 신학과정을 이수하여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강의를 중심으로 말씀의 기초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여러분의 사역에 성실한 길잡이가 되도록 본 총회신학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진선 목사

대표전화

062)511-2491
010-3161-2491
http://www.gchongsin.com

원서교부 및 접수처

원서교부 : 광주, 전주, 순천 총회신학
원서접수 : 수시 접수
*전형료는 없음

총회신학의 장점

최고의 교수진이 있습니다.
남·여 목사안수 / 각종 장학혜택
교회개혁 및 설립인허, 법인등록 등
각종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입학문의

광주 062)511-2491
전주 063)272-2491
순천 061)751-2491
수양관(곡성) 061)362-2491

광주광역시 북구 태봉로 56(신안동)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39(금암동)

전남 순천시 중앙3길 4(장천동)